

석사학위작품

생의 편린(片鱗)에서

2023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김 미 정

석사학위작품
지도교수 김선태

생의 편린(片鱗)에서

At the piece of life

202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김 미 정

석 사 학 위 작 품
지도교수 김선태

생의 편린(片鱗)에서

At the piece of life

위 작품을 미술학 석사학위 작품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김 미 정

김미정의 미술학 석사학위 작품을 인준함

202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한 동 호 (인)

심 사 위 원 김 선 태 (인)

심 사 위 원 탁 현 규 (인)

생의 편린(片鱗)에서

김미정 석사학위 청구전

2023. 6. 13 - 6. 18

작가 노트

어느새 선의 문턱에 서게 되니 생각이 많아졌다. 공자(孔子)의 《논어(論語)》중 위정 편에 나이 선은 하늘의 명령을 깨달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이라고 한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나 보편적인 가치를 깨닫고 하늘의 뜻을 알아 객관적인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나의 얕은 지식으로는 공자의 유교사상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세상 만물과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욕심을 버리고 순리대로 따르기 위해 초연(超然) 해질 필요가 있는 때에 도달했다는 뜻으로 여기고, 개인적 성향과 기호를 사용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번 작업은 소멸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새기는 오늘을 기억하는 방식일 것이다. 수많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에서 퇴색과 낡음의 어딘가에 머무르는 우주 만물의 초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삶을 대하는 태도를 온전히 조명하고자 했다.

색과 선은 상황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인식표와 같다. 형태를 이루는 선을 통해 색만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색과 선으로 단순화해 표현했다. 강약을 조절하기 위해 적절한 여백을 담채로 채색한 부분과 함께 배치함으로써 리듬감을 주었다. 예민한 시각적 감각을 동원해서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수성 안료와 염료, 분말 피그먼트를 사용했다. 섬세한 선묘가 잘 드러나도록 빛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인 펄 안료를 주로 사용했다. 그동안 축적해온 재료의 물성에 관한 경험을 이번 작업에서 충분히 활용한 것이다. 반복적인 안료와 염료의 사용조건에도 안정된 작업을 유지하기 위해 아교 반수를 한 이합 장지를 사용했고,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을 위해 일정 기간 공기 중에 노출시켰다. 바탕재로 쓰인 한지의 습윤성은 적절한 색조를 구현하여 효과적인 안료의 번짐을 도출해냈다. 동양 사상에서 대지를 뜻하는 사각형을 화면구성 요소로 활용했고, 이때 사용한 천연 은박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태와 빛이 산화되며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했다. 자연 산화를 위해 적절한 기간을 두었고, 인상적인 효과를 위해 화학적 산화 과정도 적용했다.

바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좋아하는 색을 흠뿌리거나 번지게 하며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으니, 얼마이지 않아도 되는 것에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적당한 긴장감은 유지해야 했다. 계획적이고 편집증적인 평소의 자아와 자유를 추구하는 욕구가 상충하기보다는 이번 작업에서 조화와 합의를 도출하고 싶었다. 색은 시선을 사로잡고 자유분방한 배경 형상은 섬세한 선묘와 어우러져 특정하지 않는 무한함과 우연적 변화들로 오묘함과 긴장감을 교차시키고자 했다. 다변적인 형상을 넘나들며 생명의 순환과 관계를 설명하고, 상징적인 존재도 작업의 소재로 포용했다.

주제의 표현에 있어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도 주제와 부합하게 했다. 최대한 외부 노출을 해오며 은박의 자연 산화를 유도했던 [남겨지는]의 실제 작업 기간은 1년 가까이 걸렸고, 거칠고 투박한 표면 질감을 위해 수용성 혼합 재료를 더해 보완하였다. [생의 편린(片鱗)-365개의 기록]은 사방 10cm의 천연 석재를 물고기 비늘처럼 각각의 개체로 제작하고 유동적인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표면의 은박은 산화 과정뿐만 아니라 생활 흡집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코팅을 진행하여 자연스러운 변화를 직접적으로 연출했다. 판화처럼 각각의 개체를 에디션으로 규정하고, 개체 수를 '365'라는 숫자를 적용시켜 1년이라는 시간을 연상하게 했다.

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기억을 회상하는 것과 같다.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에서 살았던 기억 중 함박눈이 쌓였던 한 겨울이나 어스름한 안개가 자욱한 이른 봄의 들판은 이후 도시에서 살게 된 나에게 자연에서 비롯된 풍부한 감성을 성장시킨 근간이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나의 작업에 회자되어 왔다. [5월의 청보리]와 [여름의 기억], [겨울 밤의 반추]가 학령기가 되기도 전의 어린 시절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여고시절부터 한 집에서 사시는 부모님 덕분에 30해를 거둬하며 같은 상수리나무를 볼 수도 있었다. 작년 가을 길상사에서 본 전각 기둥을 소재로 작업한 [나무(木)의 시간]은 오랜 세월을 견디며 버티고 서있던 것에서 경외심을 느껴서였다. 늙음을 받아들이기로 한지도 한참이 지난 중년에 있는 나는 오래전부터 푸르른 청춘을 동경해왔기 때문에 만학도의 눈에 아른거리는 청춘들을 표현한 [파랑(靑)의 상]이 진행되었다. 돌이켜본 삶을 후회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이들이 살아갈 청춘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밝고 시원하게 보이는 이미지로 담담하게 표현한 것이다. 당시엔 고달프다고 느꼈던 나의 청춘에게도 찬란했음이 있었음을 기억하고자 하는 기색도 완연하길 바란다.

처음 구상 단계에서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작업하는 계절과 맞물려 해를 넘기다 보니 사계절을 담게 되었다. 결국 모든 작업이 '시간'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전시가 진행되는 계절과 시기를 고려하여 주제가 너무 무겁고 답답하지 않게 시원한 균형감을 주려고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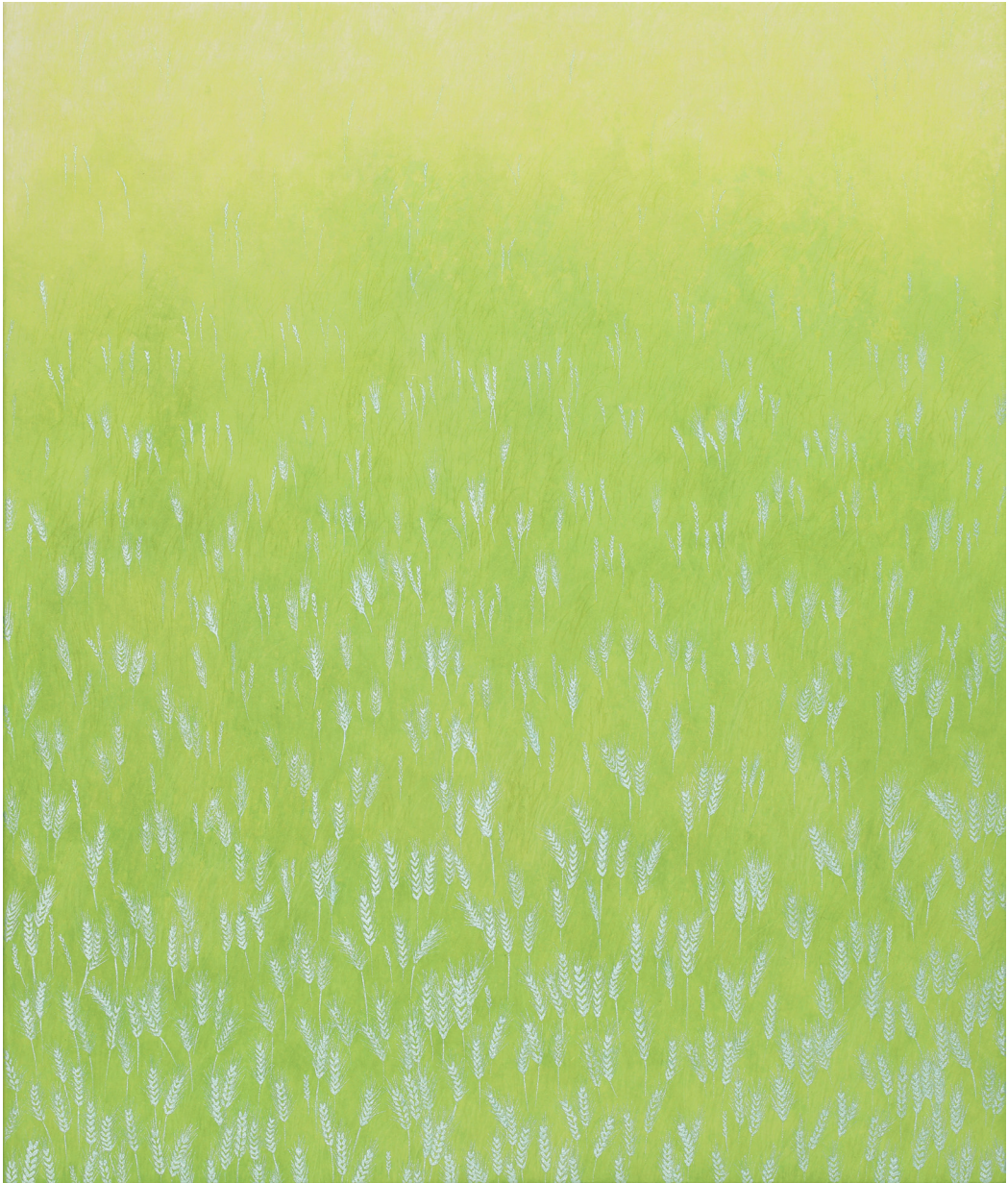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순간순간이 모두 소중한데. 시간은 유한하므로 소멸을 예감하는 생은 참으로 짧다. 의연해지기 어려우면서도 그렇다고 쉽게 안주할 수도 없다. 불투명한 미래에 한계를 두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소멸 뒤엔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어 순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자 했다. 지척에 있는 자연의 존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며, 또 한 중년의 끝자락에서 초연(超然)한 자세로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된 생을 영위하려는 내면적 성찰이기도 하다.

작업하는 동안 완벽하게 예상할 수 없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형상은 자연은 물론 인생과도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변화무쌍한 자연을 대상으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담는 것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스스로의 반증이었다. 그냥 지나칠 법한 다소 평범한 소재나 생의 순간을 포착한 일상들이 자연스럽게 예술로 스며들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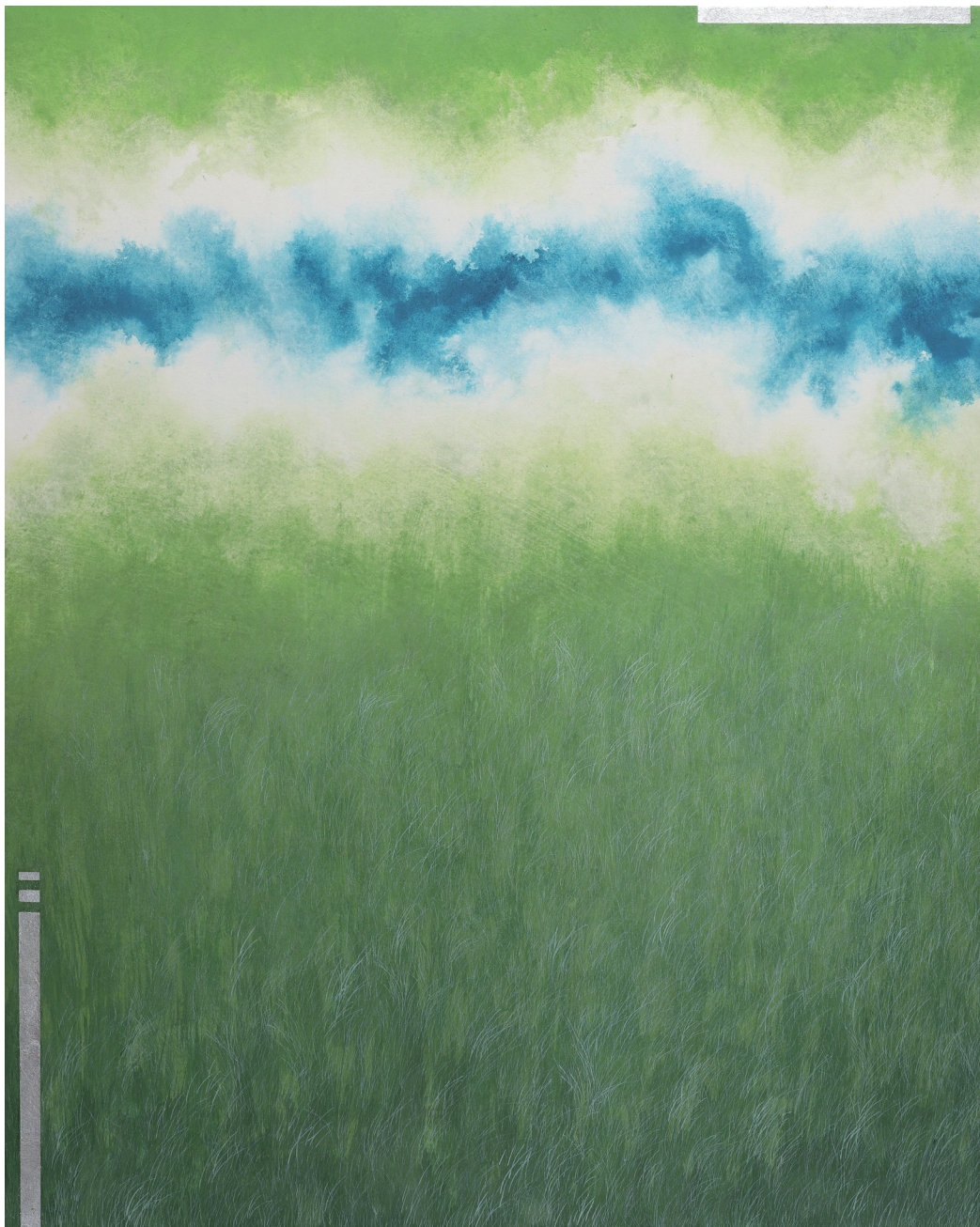
초여름에 와 있는 지금... 이번 여름에도 우리 모두가 한껏 푸르르기를 고대한다.



30해의 상수리 나무_35cm x 35cm_장지에 채색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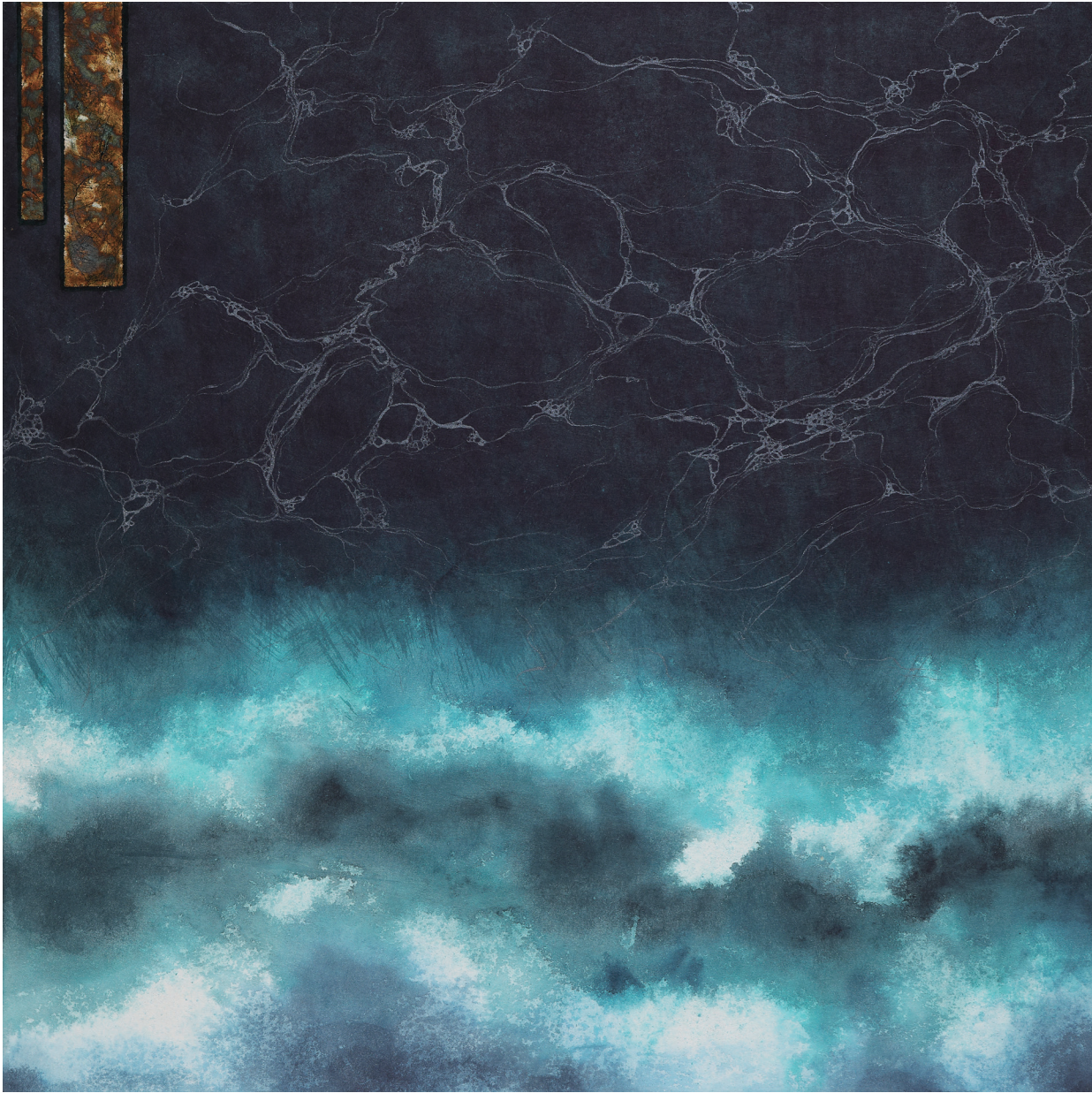
5월의 청보리_53cm x 45cm_장지에 채색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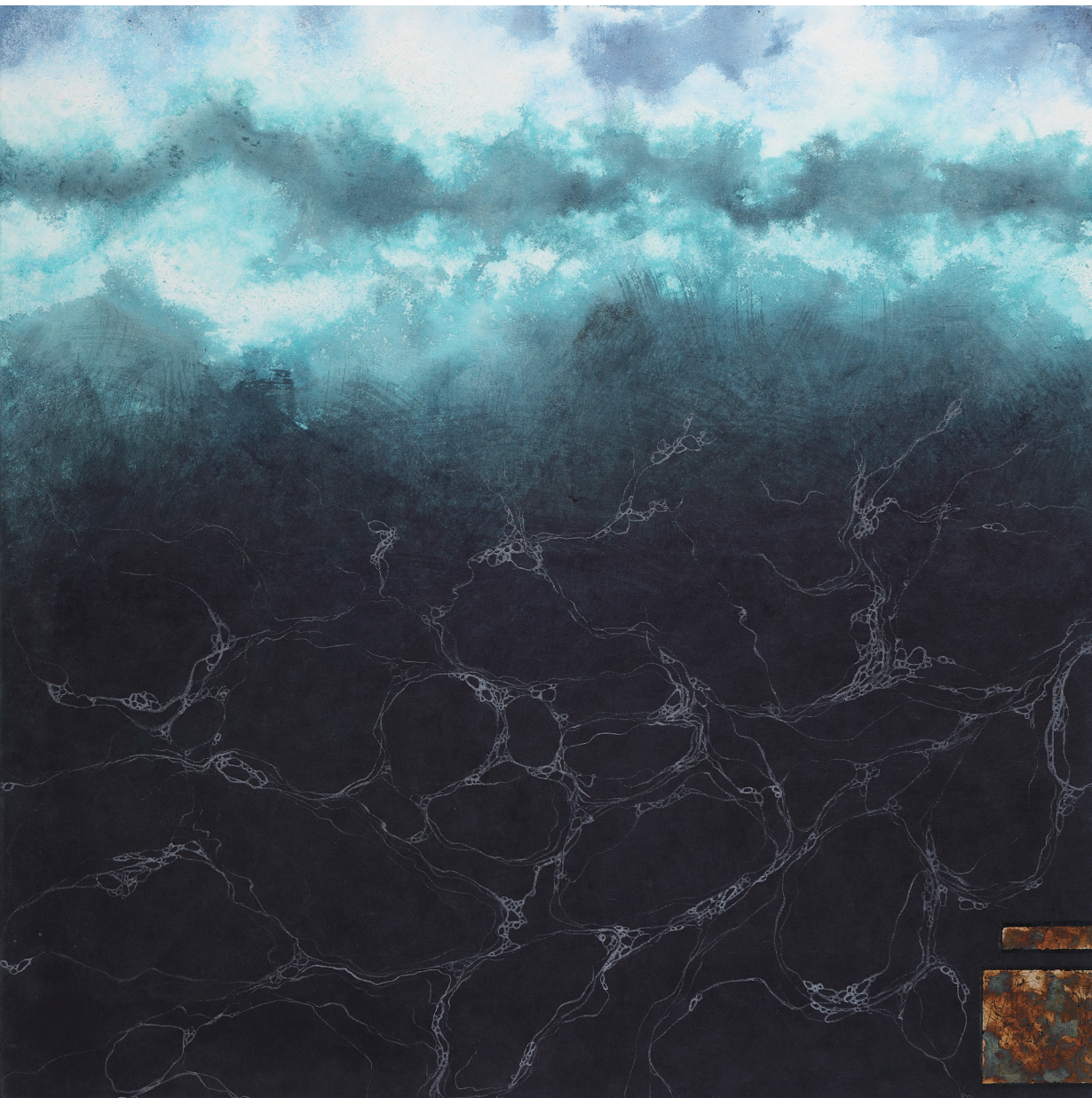


여름의 기억_91cm x 73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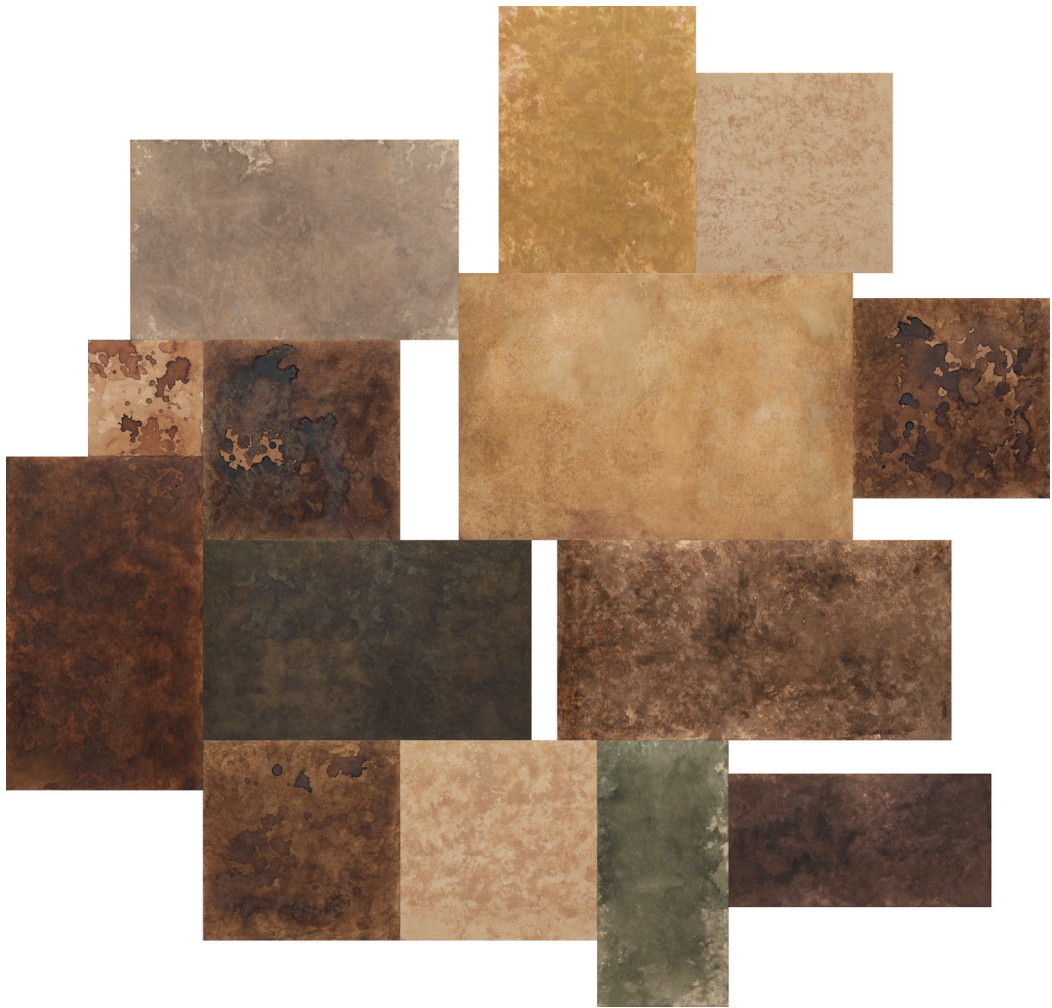


비구름의 운율_91cm x 73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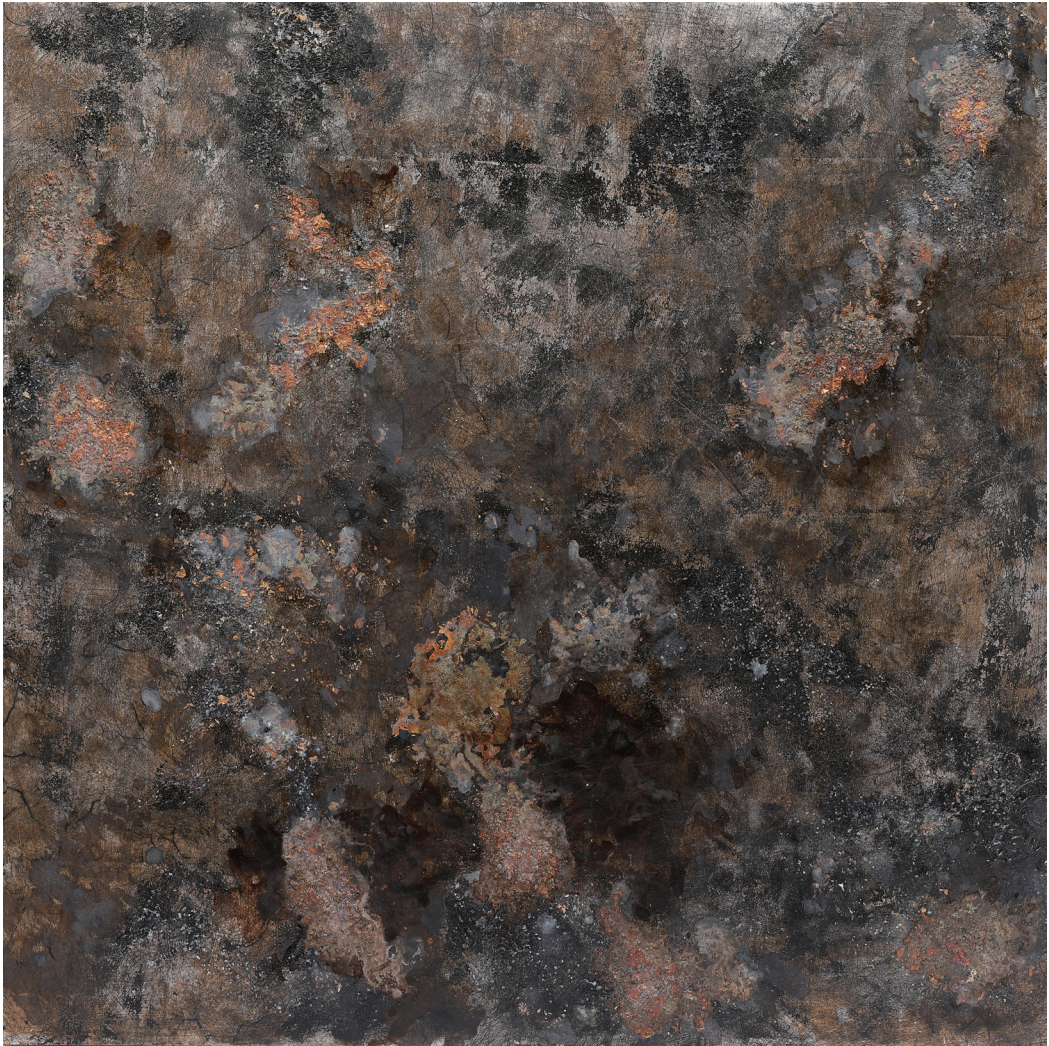
바다(海)의 결_70cm x 140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2



가을 색_150cm x 156,5cm_장지에 채색_2023



나무(木)의 시간_87cm x 34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2



남겨지는_72.5cm x 72.5cm_장지에 혼합재료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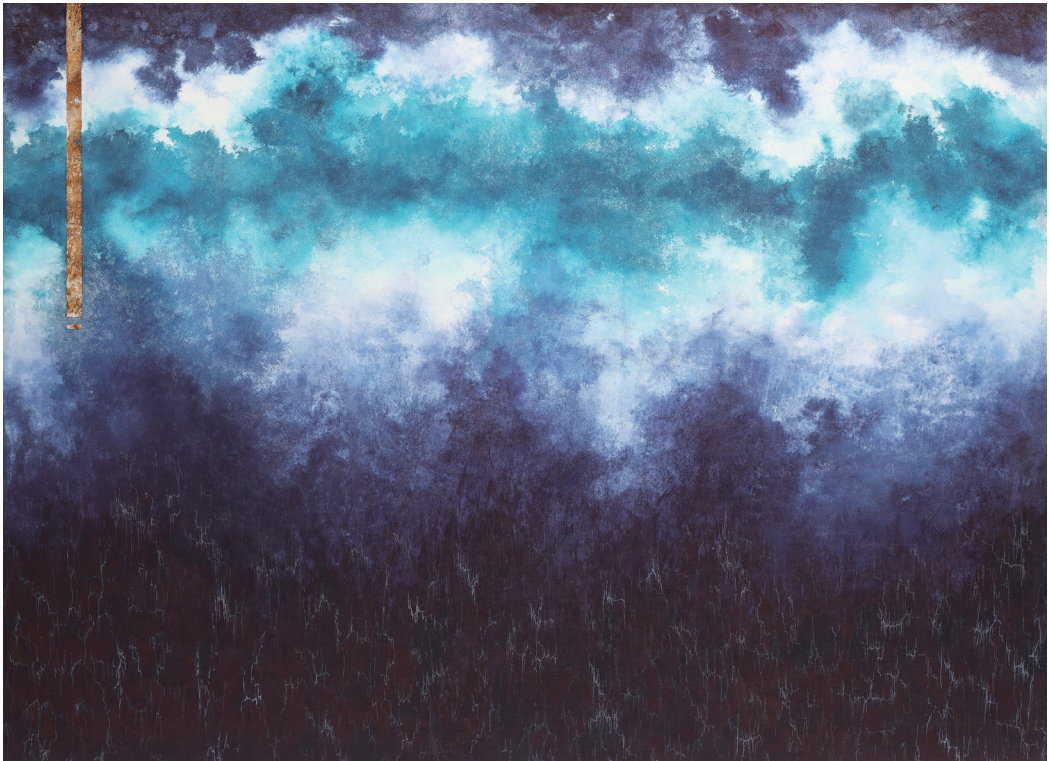
낙엽의 초상_33cm x 72.5cm_장지에 채색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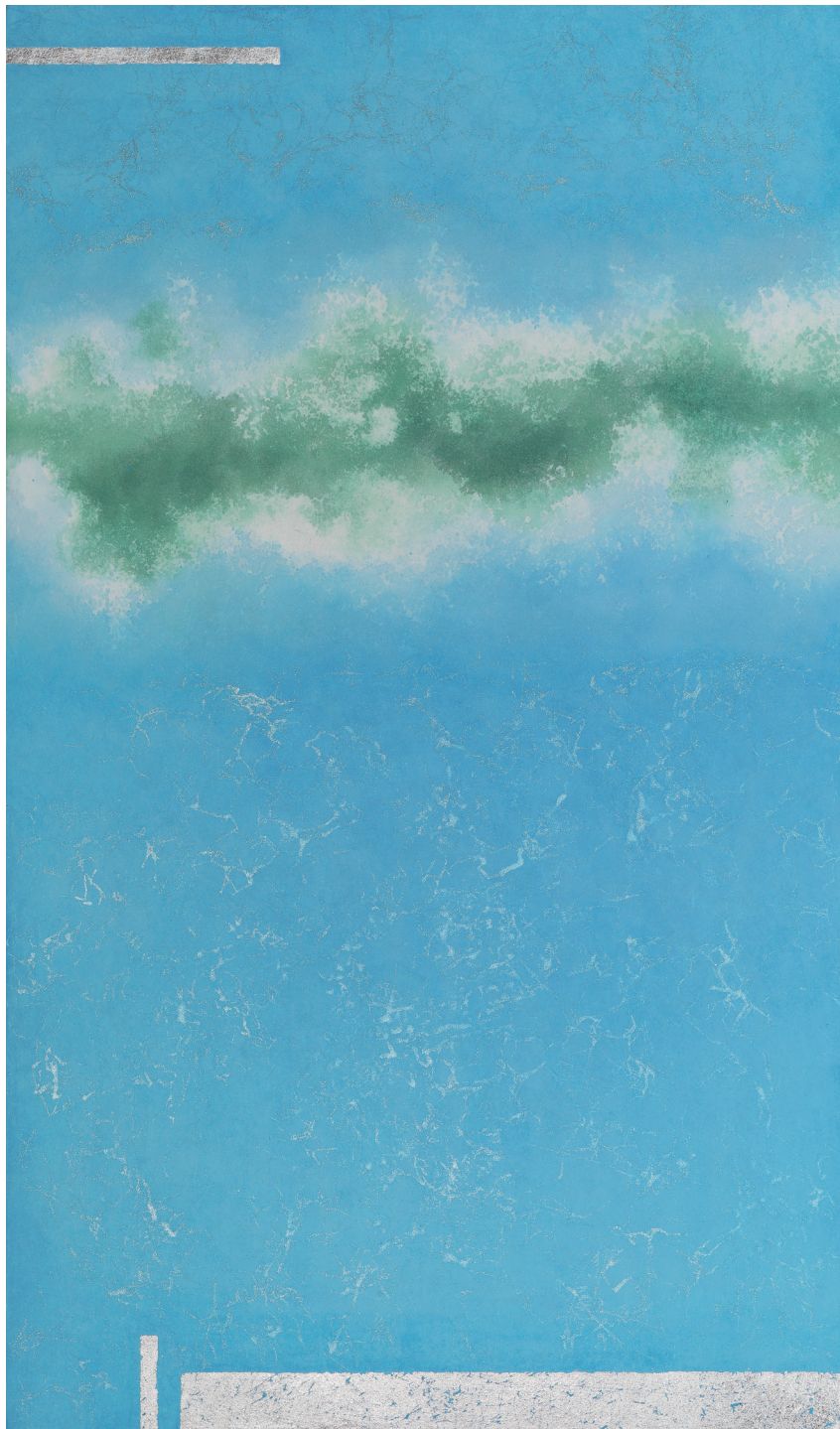
세부 이미지



생의 편린(片鱗)-365개의 기록_10cm x 10cm x 365ea_석재에 은박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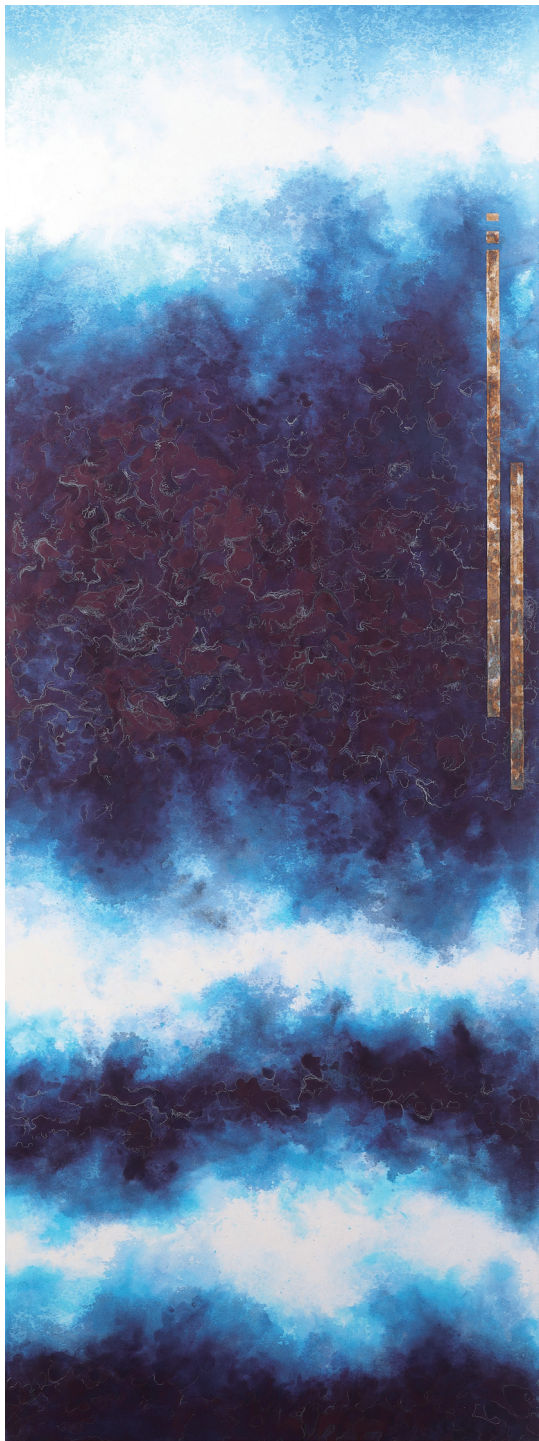
겨울 숲_72.5cm x 100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2



빙렬(氷裂)_80cm x 47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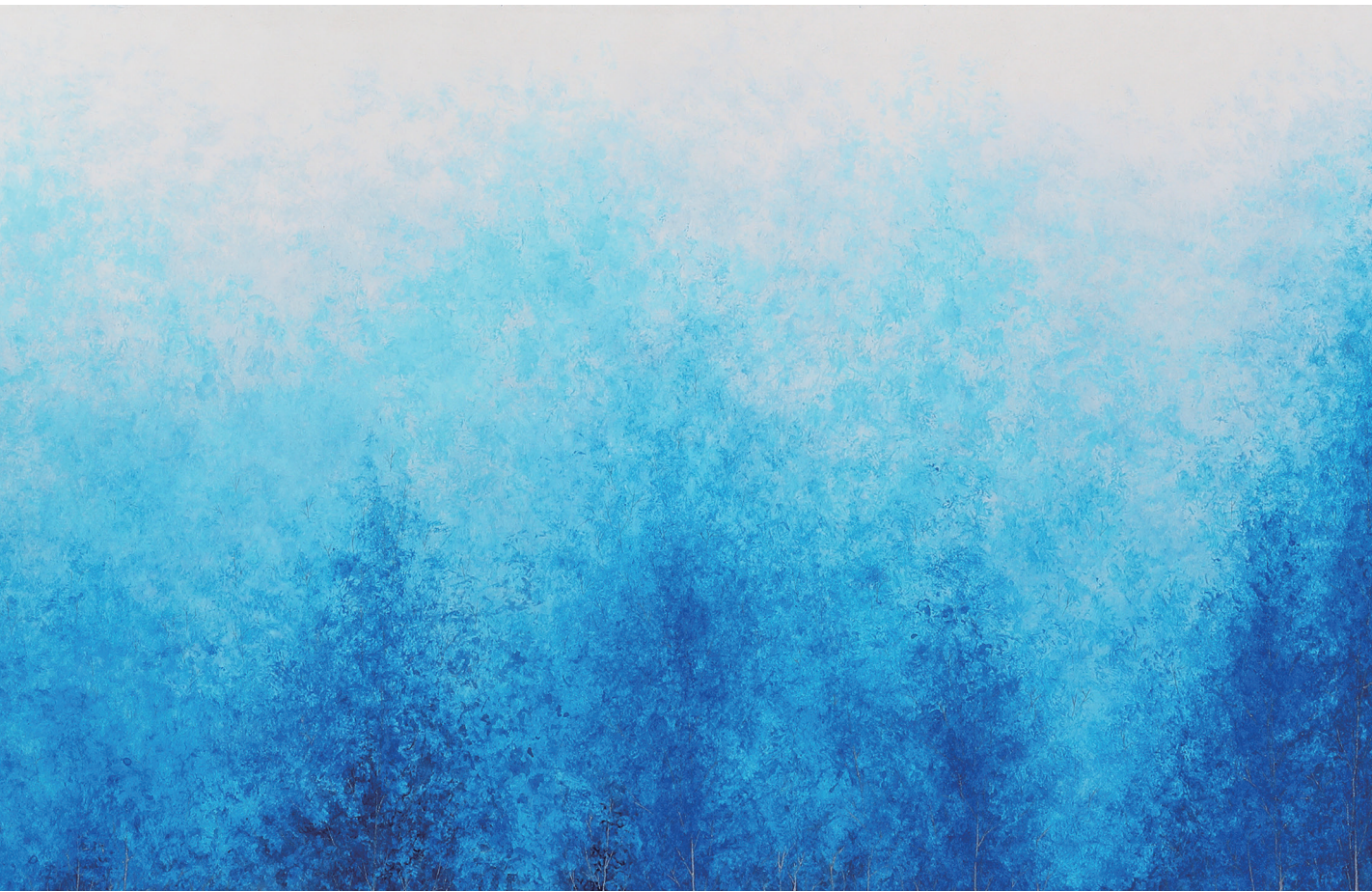


파랑(靑)의 상_117cm x 45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2



겨울 밤의 반추_170cm x 63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3





새벽 숲의 적_60cm x 190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3

Kim, Mi jeong

At the piece of life

2023. 6. 13 – 6. 18

